

환난 중에도 (로마서 5:1-11)

지난주에 힘이 없어 언약계를 뺏겼는데, 언약계가 전쟁을 끝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이다. 우리에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언약계도 그런 시스템 중 하나이다. 언약계는 언약이 아니고 언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본문의 메시지는 시스템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인생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뜻이다. 힘이 없어서 빼앗겼는데, 그래도 그 언약계가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기 바란다. 한국에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리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마음에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맘속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이 확실하게 서있는 망대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란다. 렘넌트 7명의 기도가 다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구약의 기록을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 언약을 누리고 정확하지 않은데도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에도 언약안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기록들이 있다. 이 답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답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박살내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깊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잡고 고백하기 바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언약을 또 다시 마음에 한번더 심고 심으면 이 작업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이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보면 더 쉽다. 예를 들어 사건을 가지고 설명했다. 신약의 말씀은 조금 생각해보면 결국 거기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고 하셨다. 내가 이 모든 것의 길이라고 하셨다.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다른 말씀 없어도 된다. 내가 너의 인생 모든 것의 길이야. 천국가는 것 뿐 아니라 인생 모든 것의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다른 사람 말은 전부 다 틀렸어. 끝까지 진리는 내 하나 뿐이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데는 가면 전부 죽는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절대 생명을 찾지 못한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나에게 오면 무조건 살아.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세상에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잘난 사람들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길이 되냐? 거기에 생명이 있냐? 세상에 수만가지 이론과 종교가 있다. 아주 뛰어난 이론들도 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안된다. 그래서 나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가 진짜를 찾냐? 길을 찾냐? 살고 싶냐? 나뿐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평범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말해 놓았다. 그래서 성경은 다 알 필요 없다. 성경 한 구절만 알면 된다고 한다.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된다. 태초에 내가 전부 다 만들었다. 그럼 끝난 것이다.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1. 환난 중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1절에는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신다. 지지난주에도 말했듯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다른건 필요 없다. 2절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원을 바

라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절에는 다만 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렵고 죽는 때였다. 그리고 6절에는 기약대로, 약속대로, 어느날 갑자기가 아니라 다 말씀해놓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온게 아니라 구약의 몇군데에는 이미 나타나셨다. 그리스도.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도장찍은 것이라는 것이다. 사도바울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것, 그것이면 되지 더 이상 다른 필요 없다. 이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리스도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그리스도 맞는가? 대개는 머리이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다르다. 언약을 누리고 자꾸만 이리로 더 들어간다.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만 더 감싸지고 더 발견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다. 10절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되여져야 할 구원의 첫 열매라는 것이다. 이런 성경구절들을 두고 함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어려움과 환난도 있고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두고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난으로는 표현이 약하였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지만 우리도 많은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잡아도 문제가 안 생길수는 없다. 문제는 이미 일어났고 막을 길이 없다. 그 때 언약이 이미 깨졌다. 그리고 그 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계속 영적 문제 일어난다. 육신 문제도 원인이 사단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막을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중심되는 인물들처럼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런 문제속에서도 많은 증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이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해서 구원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난이 있으면 생각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연단되어 변화되어 가는 이런 생각을 주로 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많은 증거를 보고 소망, 세계복음화를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자기 속에 들어온 언약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심이 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쟁 붙게 되는 것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를 당했다. 흉해문제, 양식, 물 문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모세, 너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하고 돌아가자고 했다. 잘 아는데로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눈하나 깜짝 안했다. 큰 믿음인가? 그럴수 있을 것이다. 언약을 딱 잡은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경이 안 쓰인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에게 언약이 된 것이다. 그 언약 속에서 계속 힘이 솟아난다.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고에 불과하다. 상관없다. 나는 그것과 상관 없이 나는 가나안 땅 간다. 이것이 모세였다. 세상에 상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가겠는가? 모세에게 대들던 백성들은 유월절 자기집 문에 피를 발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왜인가? 따라왔지만

언약은 아니었던 것이다. 은혜는 입었으나, 역사는 일어나고 증거는 나타났지만 언약인 가나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다.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에 도달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영적 상태, 수준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눈이 안 열린 것이다. 신분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생각이 거기에 도달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평생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세계 복음화여야 하고 미국이어야 하고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이 언약은 말씀이다. 그 언약만큼 눈 열린다. 어떻게 눈을 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눈이 열린다. 그 언약만큼 눈 열리고 그 언약만큼 인생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만큼 복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모세는 다 알고 있었다. 뭘 알았는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포기 안했다. 그리고 모세는 알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다. 그리고 아무도 못 막는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막는다.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신경을 안 썼다. 한 개 신경썼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셨다. 그것이 부활 메시지 4개이다. 내 율 때까지 이것을 해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준 메시지이다. 언약이 되어야 한다. 언약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시대적인 치유운동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렘넌트를 키워야 하는데 땅끝까지 가도록 힘을 주고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237, 치유, 서밋이다. 이런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이룬다. 문제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않고 언약 때문에 힘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고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 그 세월동안 참고 있기만 해도 끝난다.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룰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내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순례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많은 중직자 70인 제자, 사역자, 렘넌트 나와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다.

미국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남미에는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없다. 이런 환경속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는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느날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도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모세같이, 사도바울같이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근본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하며 산다, 이것은 결심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모세처럼 살고 사도바울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도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세상과 상관 없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

2. 핵심 인생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핵심 인물이 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핵심 인물, 어머니 요게벳, 잘 아는데로 여호수아, 갈렘, 이드로 장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인가? 그 시대의 메시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이룬 주류들이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모세 시대에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뭔가? 그게 237, 치유, 서밋이고 부활메시지 4개이다. 가나안을 간다고 말한 사람은 살았다. 하나님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필요없고 축복받았다. 기생 라합

은 자기 백성을 배신했지만 축복 받았다. 지금 내 백성 내 나라가 아니다. 생각해보라. 모세시대에 전세계에 준 메시지가 가나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믿는 사람, 기독교 국가 뿐 아니라 전세계 주셨다. 부활 메시지 4개. 눈 열려야 하고 발견되서 내것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핵심 인물들이 있다.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직자 중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교역자 중에서는 디모데가 있다. 평신도 사역자 중에는 실라가 아니었겠나 한다. 또 중요한 중직자 있다. 가이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던 주류들이다.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명단이 올라갔다는 것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런 핵심 인물, 핵심 인생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을 가진 교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핵심 인물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미국과 남미 복음화에 핵심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경제가 준비가 되어지면 다음단계의 남미 복음화 운동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자 준비였다. 다음 단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남미에 5천 종족 운동을 할 것이다. 2부예배에서 좀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남미 복음화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틀림 없다. 마음이 안 따라오는 분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런지 기도해야 한다.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불신앙 회개해야 한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과 똑같은 것이다. 너희 교회는 미국과 남미야. 모세 시대는 이집트 사람들도 만일 가나안 땅에 갔으면 살고 축복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단어가 아니다. 그 시대에 나의 메시지 가나안.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부활 메시지 4개. 이런 언약을 잡고 우리가 2부 예배는 임마누엘남가주교회 핵심예배로 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면 자기가 먼저 응답 받는다.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함께 말씀 받고 응답받고 시대적인 인생이 다 되는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 부활메시지 4개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말씀 편집과 기도를 통해서 눈 열리고 응답받고 핵심 인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기 바란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다. 한번 말씀대로 해보다가 죽을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게도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다. 어찌다가 이 선택을 받았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냥 죽어서 안되고 하다가 죽어야 한다. 모든 중직자 사역자 렘넌트, 교회를 넘어서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모자리 같은 것이다.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파송을 보내는 것이다. 플랫폼이다.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에 머물러 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세가 백성들만 돌보고 가나안을 안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는 것이다. 안가려고 버티든지 말든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도 살았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지고, 니가 죽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안 그러면 안 따라가진다. 자기도 모르게 버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이다. 모든 중직자 제자,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중대한 시간표 되기를 축복한다.